다양한 IT동아리 중에서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10기를 선택하고 지원하시게 된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10기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주세요.

멋쟁이사자처럼을 대학에 입학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아리 중 하나이며 자신에게 의미있는 도움이 되었다는, 소위 말하는 ‘간증글’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4학기를 마치고 휴학중인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동아리 활동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학교생활을 하며 여러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의 능력이고 둘째로는 프로젝트 경험의 기회입니다. 복수전공까지 하는 학교 강의, 학회 활동과 병행하느라 스스로 하는 알고리즘 공부에 집중하기엔 부족한 시간, 그리고 비대면은 제게 여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모두 모집한다는 점에서 전공자이지만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이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꼭 필요한 동아리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10기는 모집 분야를 나누는 만큼 제가 원하는 분야에 더 집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론트엔드’

위의 파트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파트를 통해 어떠한 성장을 희망하시는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2022년 올해 계획 중 자바스크립트 공부가 있었습니다. 흥미가 생긴 프론트엔드 직군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인만큼 꼭 올해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에서 자바 강의를 들으며 스윙컴포넌트를 이용한 GUI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직접 만든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코딩한 내용이 빠르게 시각적으로 와닿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과제와 시험 역시 제출기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깨달음과 희열의 연속이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론트엔드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임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어디에 분명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의 프론트엔드 파트에서 활동하며 이 기회를 더 성장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최고의 행운이라는 ‘좋아하는 것을 잘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 대학은 협업과 팀워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협업과 팀워크를 진행해보았던 경험과, 그 경험을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들과 스터디 그룹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작은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이 목표인 아주 소소한 스터디 그룹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알찬 스터디 그룹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별과제가 있는 강의는 아니었지만 스터디 그룹에서는 1~2주동안 공부한 내용 팀을 짜서 같이 정리, 발표하고 자료를 아카이빙하며 매주 무언가를 해나갔습니다. 실습 과제가 수업 내용보다 다소 어려웠었는데, 팀워크가 좋은 스터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고 성적 역시 모두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이 스터디를 하며 느낀 점은 옆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기만 해도 힘의 원동력이 되며, 그것이 함께 할 때 얻는 시너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부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부원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진정한 협업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저와 동료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부원이 되고싶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 대학은 최소 주 1회 모임 & 6시간 이상의 시간 투자를 권장합니다. 활동 기간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매주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는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저는 올 한 해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휴학을 결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무엇보다 자기계발과 전공 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언젠가는 나태해질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리고 지난 2년간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알바가 제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줬음을 느껴 평일 오전부터 점심까지 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할애할 수 있습니다. 멋쟁이사자차럼의 올해 커리큘럼과 제가 휴학기간동안 공부하려고 했던 계획의 상당부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멋쟁이사자처럼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기 위한 첫 걸음인 멋쟁이사자처럼 활동을 통해 휴학생이라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 갈증을 해소할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자신의 강점 무엇인가요? 그 강점이 돋보였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500자) \*

저의 강점은 결단력입니다. 회복탄력성이 좋고, 결정적인 순간에 확신을 가진 빠른 선택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길을 고를 줄 압니다. 저는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 아래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치 덕분에 단체주문이 매우 많습니다. 단체주문과는 별개로 일반 손님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과 처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을 하는 곳마다 손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저의 강점이 이런 곳에서 발휘되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선택과 집중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복수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신중히 며칠 생각해본 뒤 바로 복수전공 신청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더 생각해보는게 어떻냐는 조언을 했지만 저는 오래 고민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의 신조 중 하나인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자'가 저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500자) \*

런데이라는 앱을 통해서 매일 삼십분씩 러닝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운동과 친하지 않아 비기너 코스를 선택했는데, 걷기 뛰기를 반복하며 점차 뛰는 시간을 늘려서 코스의 마지막에는 결국 쉼 없이 삼십 분을 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뜨자마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틈이 없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쁜 숨과 찬 바람을 모두 느끼며 달린 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뛰기 시작하니 힘들어도 그만 두고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의식해서 만들려면 큰 노력이 들지만 관성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최근에는 1일1커밋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졌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항 답을 작성하며 런데이처럼 꾸준함의 관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